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13호 【루계 제2639호】

주체110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음력 2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펼친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과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응축된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떠서게 된다.

우리의 국력과 사회주의문명을 과시하는 새로운 인민의 리상거리들을 일떠세우게 될 대규모살림집건설은 조선로동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이며 특히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3월 23일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시고 위민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건설자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충만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방대한 공사이지만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한번 크게 과시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전선으로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력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이 제일먼저 믿는 인민군대가 건설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모든 건설자들이 창조적열성과 노력, 열렬한 애국심으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와 결사관철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을 몸소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착공식에서는 조선인민군 차수 김정관 국방상이 건설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여해주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을 혁명의 군기로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승리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오늘의 투쟁에서 돌격전의 기수, 건설영웅이 되여 새로운 평양속도, 새로운 건설기적을 창조할 굳센 의지를 토로하였다.

전체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불굴의 공격정신과 무비의 돌파력으로 당창건 80돐이 되는 2025년까지 평양시에 해마다 1만세대의 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움으로써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척후대, 제일선봉대가 될것을 당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하였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진행되였다.

약동하는 3월의 대지를 뒤흔든 장쾌한 뢰성에 이어 드넓은 건설장에서는 전체 건설자들의 기세가 충천한 속에 수많은 굴착기들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일제히 공사에 착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존엄높은 당대회의 이름으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실행하는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건설투쟁에 용약 진입한 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해주시였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조선로동당의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높이 들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비약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용한 기상을 뚜렷이 과시하며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주체110(2021)년 3월 23일

영예로운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오늘 우리는 우리 수도건설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리정표를 새기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올해초에 있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우리 수도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당대회가 결정한 무겁고도 거창한 투쟁과업들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 오늘로써 드디여 본격적인 시발을 떼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도의 살림집부족세대수를 장악하고 그 해결대책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간주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이 막중한 과제를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건축발전구상과 건설정책을 재확정하였습니다.

건설방향과 순차를 다시 정하고 국가건설총예산의 많은 몫이 살림집건설에 지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작전과 준비사업을 한데 기초하여 당 제8차대회에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정책화한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당창건 80돐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중에 있는 1만 6, 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될것입니다.

수도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통이 크게 건설하는것은 중첩된 난관을 맞받아 기세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불가항력적인 투쟁기상을 떨치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 아는바이지만 평양시에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매우 힘들게 락착되였습니다.

사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건설을 하는것 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5년전 려명거리건설을 시작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진행되며 더우기는 그 몇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거창하고 훌륭한 대건설을 벌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배짱이 있으며 이 아름찬 건설과제를 얼마든지 실행할수 있는 자신심과 경험, 밑천이 있습니다.

아직은 건축형성안에서나 볼수 있는 특색있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이해말에 가서는 이 송신, 송화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한번 크게 과시될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주체건축은 또 한단계 비약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며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우리의 건설은 더 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록색건축, 건식공법과 같은 선진적인 건축기술, 건설공법들이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도입되고 건설장비들과 건재들을 생산하는 공업기지들의 토대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며 우리의 건설부대들과 건설자들은 보다 강력하고 능숙해질것입니다.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력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수도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방향과 북쪽방향으로 넓히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는 력사적인 건설사업입니다.

평양시의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구, 금천지구, 9.9절거리지구에 해마다 차례차례 1만세대의 살림집들과 이채로운 공공건물들이 솟아오르면 우리 국가의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것이며 이것은 가장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21세기 20년대를 상징하는 뜻깊은 기념비로 될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떠세우는 새 거리들에서 살게 될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은 최악의 도전을 박차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거대한 건축군을 떠올린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을 영웅적인 세대로 두고두고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대건설은 영광의 시대를 력사에 기록해놓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동지들!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전선으로 될것입니다.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는 수도의 면모를 또 한번 개변시킬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방대한 대공사를 작전하면서 건설의 주역을 맡게 될 주력부대들을 강력하게 편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우리 당중앙이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먼저 믿은것은 두말할것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입니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견결히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도 언제나 큰 몫을 맡아 제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전역들과 피해복구전구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전장을 타고앉아야 전반적인 건설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어김없이 철저한 관철로써 보답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기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서 뚜렷한 공훈을 세운 수도건설위원회와 속도전청년돌격대, 혁명사적지건설국, 대외건설국을 비롯한 사회의 주요건설부대들도 이번 대건설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건설전투의 성과여부는 직접적담당자인 지휘성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과 지도는 최종적으로 매 건설일군들의 창조적열성과 노력에 의하여 현실화되며 당은 우리 건설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재능을 무엇보다 크게 믿고있습니다.

설계부문앞에 나서는 임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 그 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고있고 건축물들이 조형화, 예술화, 다기능화, 지능화되고있는 오늘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설계부문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는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리상과 문명수준이 비끼게 하는것입니다.

설계일군들은 이미 확정시달된 거리형성안과 설계방안대로 모든 대상설계를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만점짜리로 작성하며 해당한 설계도면들을 시공부문에 시급히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시공을 맡은 모든 건설단위들은 건설작업에 지체없이 착수하여 일정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상반년안으로 담당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모든 건설부대와 단위들에서는 시공의 질을 높이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건설작업의 전 공정을 질보장으로 일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과 국가앞에,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그리고 력사앞에 자기의 충성심과 애국심, 량심을 검증받는다는 자세와 립장을 항상 견지할 때 모든 건축물들이 명실공히 우리 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될수 있습니다.

건설감독부문의 역할을 높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 인민의 요구와 리익, 건축의 안전성을 철저히 준수,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멘트와 철강재, 각종 건재품들과 설비들의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수도의 살림집건설성과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도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도의 대건설장과 철강재, 건재생산기지들에 요구되는 물동을 신속히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상공세를 앞세워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성심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건설시작부터 마감까지 온 건설장이 충천한 기세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중을 보람찬 건설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뿐아니라 오늘의 거창한 수도건설전투장이 곧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용감한 실천가들, 씩씩한 사회주의근로자들을 키워내는 격렬한 혁명전구,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것을 최대로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전역에 방역초소와 시설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기풍을 수립할것이며 각종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자들이 불편없이 작업에 전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해당단위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매 건설전투원들에게 규정된 공급량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은 우리가 첫삽을 뜨지만 이제 몇개월후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민의 거리, 우리모두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희한한 대건축군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그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우리 모두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건축물들의 설계와 원림설계를 잘하여 도시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우리 나라 주택구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내밀어 올해중에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도시록화와 자연경관설계에 대한 인식과 상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도시건설을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과 휴식,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새로 일떠세울 호안다락식주택구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생산한 려객뻐스시제품을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생산한 려객뻐스시제품을 료해하시였다.

수도의 려객운수문제를 두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수도교통망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와 평양뻐스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뻐스와 2층뻐스시제품을 개발하여 당중앙에 보고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려객뻐스시제품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려객뻐스에 오르시여 기술적특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평양시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뻐스들을 만들어 려객운수수단문제를 풀겠다고 결의해나선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도시미화에 어울리며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한 려객뻐스를 대량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도려객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는것은 수도운영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인민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생활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려객뻐스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며 년차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여주시고 실행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본사기자

국 방 과 학 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이 무기시험을 지도하였다.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리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다.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

국방과학원은 시험발사직후 이번 시험발사는 확신성있게 예견한바 그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으며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고 밝혔다.

리병철동지는 오늘의 무기시험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위협들을 억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리병철동지는 시험발사의 성공적인 결과를 즉시 총비서동지께 보고드리고 당중앙의 축하를 국방과학연구부문에 전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민헌신의 길에서

뜨거운 당부

주체107(2018)년 2월 어느날 늦은 밤이였다.

수도의 거리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무궤도전차가 달리고있었다.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시운전을 지도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겉만 보아서는 새로 만든 무궤도전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동행한 일군들에게 무궤도전차를 타고다닐 인민들의 립장에 서서 부족점이 없는가를 다같이 꼼꼼히 살펴보자고 이르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의 려객운수부문에서 인민대중의 요구, 인민대중의 평가를 언제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그에 철저히 복종하는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특히 추운 겨울날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원만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

몇해전 1월 어느날 평양제약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항시적으로 필요한 대중약품, 상비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약품가지수를 보다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세계적인 제약공업발전추세를 잘 알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포장용기들의 위생성, 문화성, 실용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과 함께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도록 상표도안도 국제적기준에 부합되게 잘 만들데 대한 문제…

인민들에게 효능높고 위생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의약품을 마련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의 개건현대화는 단순히 의약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이 좋다는것을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지 페부로 느끼도록 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투쟁, 보람찬 투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수필 따스한 봄

따스한 봄날이 향긋한 기운을 풍기면서 우리곁에 다가왔다.

달디단 봄비와 살틀한 봄별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무와 풀들은 서로 움을 틔운다.

산천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겨울옷을 벗고 밝은 모습으로 거리에 나서고있다.

어느 작가가 쓴것처럼 아버지같이 엄하고 어머니같이 부드럽고 련인같이 열정적인 봄바람은 모두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준다.

따스한 봄이 가져다주는 이 정서!

허나 공화국인민들이 봄을 사랑하는것은 단지 계절이 가져다주는 따스함때문만은 아니다.

며칠전 출근길에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연설을 하시였대요.》

《머지않아 희한한 새 거리가 또 하나 일떠설거요. 정말 좋은 봄이로구만!》

환희와 기쁨에 넘친 사람들의 말은 길지 않았어도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공화국인민이 느끼는 봄에 대한 류다른 감정이 아니겠는가.

돌이켜보면 이 땅의 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새 소식들로 인민의 가슴속에 찾아오군 했다.

옛날에는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면 봄이라 했건만 오늘의 봄은 인민을 위한 새 소식으로 찾아오는 따스한 봄인것이다.

인민극장의 완공소식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던 2012년의 봄, 조국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가 깃든 2013년의 3월전원회의소식, 멋쟁이궁전으로 개건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기쁘게 해준 2014년의 봄…

2016년의 봄은 또 어떻게 왔던가.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려명거리건설이 선포되여 세인을 깜짝 놀래우지 않았던가.

불과 1년만에 려명거리가 완공된 소식을 전해준 2017년의 봄,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생활을 안겨주시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2019년의 봄…

이해 2021년의 봄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소식으로 인민을 또다시 환희에 젖게 하였다.

생각은 더더욱 깊어진다.

과연 지금이 어느때인가. 전세계가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와 혹심한 경제난으로 몸부림치고있는 때가 아닌가.

더우기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려명거리건설의 몇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건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1만세대 살림집착공식연설에서 우리 당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인민의 보금자리를 세상보란듯이 일떠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세계에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인민들에게 더 좋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봄별처럼 따스히 스며든다.

그렇다.

이 땅의 봄은 단순히 겨울이 가면 절로 오는 자연의 봄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으로 오는 따스한 봄이다.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바람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신다면 못해낼것이 없다는 신심, 공화국의 잠재력과 인민의 창조력에 대한 긍지가 있어 이 땅에는 기적과 창조,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

얼마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진행된 소식은 수도시민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한 통이 큰 구상과 작전을 펼치시였다는 감동적인 보도에 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것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성대한 착공식이 열리였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언제나 인민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친히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연설도 하시였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인민의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는 공화국에서 살림집건설은 그 어떤 경제적타산이나 리득을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인민들의 행복을 더욱 꽃피워주기 위해서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로고속에 나라의 방방곡곡에 현대적인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는가.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삼지연시와 그리고 대청리, 강북리, 검덕지구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들에 일떠선 수많은 살림집들…

그 하나하나의 거리와 마을들에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이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어리여있다.

매 거리와 마을들이 자기의 특색이 살아나도록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흙먼지 날리는 건설현장도 찾아주시였으며 완공된 아빠트의 살림집을 돌아보시면서는 매 방들에 놓을 가구의 모양과 위치도 정해주신 다심한 어버이이시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속에 거리와 마을, 창조물들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설수 있었다.

이처럼 나라의 곳곳에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수없이 마련해주시고도 오늘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이라는 거창한 작전을 펼치신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앞길에는 많은 도전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을 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다.

오직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불같은 인민사랑을 삶의 신조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용단이고 실천인것이다.

인민과의 약속, 인민을 위한 맹약은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였기에 올해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방대한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쾌한 폭음을 울리도록 하신것이다.

정말이지 수도시민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격정으로 끓게 하는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다.

그 건설이 얼마나 크고 황홀한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 사업인가는 조감도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인민의 행복의 높이인듯 키솟은 아빠트들이며 미래를 향한 대통로인듯 쭉쭉 뻗어나간 도로들, 형형색색의 다양한 살림집, 보기만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희한하고 웅장한 새 거리이다.

이제 건설은 시작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완공된 거리에로 달리고있다.

당에서 인민을 위해 지어주는 새 집, 새 아빠트들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 나라의 은덕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겨주자고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첫날부터 건설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절세위인의 애민의 호소가 아침저녁으로 뜨겁게 고동치고있다.

오늘은 우리가 첫삽을 뜨지만 이제 몇개월후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민의 거리, 우리모두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희한한 대건축군이 솟아오르게 될것이라고,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신 그날의 절절한 호소가.

인민의 리상거리, 그것은 수도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도시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우리 인민모두가 보다 문명하고 안정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사랑과 그 애민의 호소에 고무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머지않아 평양시에는 보다 웅장화려한 새 거리가 일떠서고 인민이 웨치는 로동당만세소리는 강산을 또다시 뒤흔들게 될것이다.

장원기

인민들과 한 약속

얼마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알리는 착공식이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있었다.

이 착공식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몸소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는 사업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나라의 천사만사를 다 뒤로 미루시고 몸소 착공식장에 나오시였겠는가.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 해마다 1만세대씩 총 5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들과 한 약속이다.

인민들과 한 약속!

조선로동당이 인민들과 한 이 약속에는 인민에 대한 최대의 존중과 사랑, 믿음이 깃들어있다. 하기에 인민들과 한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고 그 수행을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정초에 열린 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을 정책화하시였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소한 편향이 없이 집행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해마다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인민의 믿음, 인민의 기대를 가장 큰 재부로 간주하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지금과 같이 조건과 환경이 매우 불리하지만 이 사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간주하시고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내세우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연설하시면서 사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건설을 하는것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당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이 말씀에는 인민과 한 약속을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한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어리여있고 인민을 위해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려는 숭고한 인민관이 함축되여있다.

진정 인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우에서 이 땅우에는 인민의 거리, 누구나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희한한 대건축군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 강산에 차넘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자주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

남조선에서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각계층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이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고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인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현지에 미국의 주요외교안보당국자들이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는 피할수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행각기간 그들이 할 일은 동북아시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일공조복원압력뿐이다, 그 어떤 회담주제도 리로울것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국민주권련대, 평화이음을 비롯한 진보적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5년만에 열리는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은 미국의 《대북》, 대외정책추진에 가담할것을 강요하려는것으로서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의 《한미동맹》강화라는 안보전략지침을 관철하려는것이라고 하면서 서울행각의 불순한 목적을 까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행각을 계기로 《한》미일협력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서 미국의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고 우려하였다.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협정》체결반대투쟁과 병행하여 벌어졌다.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남조선에 와서 할 일이 뻔하다. 방위비인상협상이다.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오는것이다.》라고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위비분담금을 13.9%나 인상한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COVID-19〉로 전세계가 어려운 때 이렇게 인상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도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은 주민들의 혈세를 퍼주는 행위, 도적놈과의 흥정, 미국에만 합리적이고 유리한 체결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주권련대 등은 《긴급시국토론, 위험천만한 한미전쟁훈련강행은 초불민심을 배반하는것》이라는 주제로 방송토론회를 열고 《주한미군주둔비 국회비준 거부하고 민생 먼저 챙겨라!》, 《주한미군주둔비 폐지하라!》, 《주민혈세 단 한푼도 줄수 없다!》는 구호를 웨쳤다.

그러면서 진보운동단체들은 미국딸라가 그려진 상징물불태우기, 현수막게시, 거리행진, 모형물까부시기를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언론들은 시민사회가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남조선행각을 계기로 강경한 반미립장을 표시하고있다, 미국의 분담금인상요구에 단 한푼도 줄수 없다는 함성이 울려퍼지고있다고 전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지 명 기

《동맹강화를 내세워 숙제만 안겨주었다》

최근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들이 남조선에 날아들었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사전부터 《굳건한 한미동맹을 내외에 과시할 기회》라고 크게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요와 무시로 하여 남조선이 더욱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는것이 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파이낸셜뉴스》는 미국 외교, 국방장관과 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립장을 재확인했지만 《정부》가 풀어야 할 외교적부담과 숙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숙제를 풀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아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3각공조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일본과 무조건적타협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했을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일본군성노예배상판결과 강제징용관련재판 등 력사적문제를 《대북정책》협의와 별개로 취급한다는 일본측의 동의도 어렵거니와 《한》미일협의체복원도 숙제이라고 전하였다.

남조선언론 《헤랄드경제》도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11년만의 동시방한은 인디아태평양지역문제, 한반도문제, 대일정책전환의 〈3대숙제〉만 안겼다.》고 평하였다.

한편 언론들은 서울에서 진행된 회담의 의제들에서 당국이 미국의 강압적인 주장에 난처한 립장을 표시했다고 여러 각도에서 보도하였다.

언론 《데일리안》, 《매일경제》는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철통》, 《핵심축》 등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과시했지만 정책우선순위와 《대북인식》에 있어서는 미국에 끌려다닌 립장이였다, 《한》미가 발표한 공동합의문은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우선 이날 나온 합의문은 력대 가장 짧았다,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못한것은 그만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내용면에서도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고 전하였다.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당국이 미국의 요구를 의식한것이라고 분석하였다고 한다.

많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성과》보다는 남조선과 미국간의 모순과 갈등만 더 드러났다고 하면서 《동맹강화》를 내세워 《숙제》만 안겨준 미국에 대한 회의적인 감정도 표면화되였다고 평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외세의존과 굴종은 자멸의 길

남조선에서 해마다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해치려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연습이다.

남조선당국은 입으로는 《평화》를 웨치면서도 행동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몰아오려는 외세의 전쟁책동에 계속 추종하고있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해치려하는 외세와 손을 잡고 북침선제공격의 방아쇠를 당기려 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떠드는것은 위선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외세에게 의존하고 굴종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망치게 하는 길이다.

력사는 민족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는것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것을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리다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은 남조선의 력대 집권세력들의 수치스러운 운명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과 대미추종정책에 매달려 차례질것이란 온 민족의 규탄배격과 자멸적결과밖에 없다.

최 성 일

뒤골방에 숨어서 해도 불장난은 불장난

남조선군부가 내외의 강렬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린것은 민족의 분노를 끓게 하고있다.

시작부터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상투적인 간판을 내건것도 유치하기 그지없지만 실기동이 없이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콤퓨터모의방식의 지휘소훈련이라는 광고까지 해대며 못된짓을 한사코 벌린것은 우직하고 무지스런 행태이다.

총포탄을 쏘아대지 않고 콤퓨터건반이나 두들겨댔으니 《미수》에 불과한것이라고 그 누구의 《유연한 판단》과 《리해》를 바라는것 같다.

문제는 전쟁연습의 규모나 형식이 아니라 그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본질과 성격이다.

이번 연습에 실시한 《작전계획 5015》만 놓고보아도 《선제타격》을 가상한 《작전계획 5027》과 그 누구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를 취여짜 혼합한것으로서 철두철미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계획, 핵전쟁계획이라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 전쟁계획에 따라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 《년례적》으로 벌어졌으며 《방어적》이라는 감투를 씌워 내외의 이목을 오도해왔다는것도 잘 알려져있다.

그로 하여 해마다 3월이면 조선반도의 긴장격화가 극도에 이르군 했다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것이고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3월전쟁설》, 《3월위기설》이 자주 나돌군 하였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 겨레가 요구하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위험만 고조시키는 침략적인 외세와의 합동전쟁연습 그자체를 반대하는것이지 규모나 형식의 축소따위가 아니다.

남조선인민들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고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연습이자 적대행위 그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것》이라면서 당국이 연습중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남조선내부에서도 전쟁연습반대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커가고있는것은 이 연습의 위험성을 더욱 반증해주는것이다.

마당에 나와서 하든 뒤골방에 숨어서 하든 불장난은 불장난인것이다.

리 련 희

적폐잔당들의 발악적추태

남조선에서 당국의 검찰개혁추진과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과 보수세력들의 반발로 하여 내부가 갈수록 복잡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검찰당국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과 《검찰청법폐지》안을 두고 《헌법위반》이니 뭐니 하며 완강히 반대해나서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TV조선》은 《범여권과 검찰간에 또 다른 갈등도 불거지고있다.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페지하고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걸 준비하고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려는 범여권에 검찰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있는 여당과 검찰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정치검찰의 철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있다고 한다.

알려진것처럼 력대로 남조선의 검찰은 보수세력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사회의 진보와 정의를 말살하면서 파쑈독재의 앞잡이로 악명을 떨치였다.

보수《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을 비호하고 통치위기수습과 진보세력말살을 위해 파쑈모략과 《공안탄압》에 광분한것이 바로 남조선검찰의 어지러운 력사이다.

남조선검찰과 보수패당의 이와 같은 망동은 검찰개혁을 한사코 가로막아보려는 적폐잔당들의 발악적추태인것으로 하여 각계층의 비난만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권력쟁탈을 위한 피터지는 싸움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보충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인물들의 피터지는 싸움이 계속되여 여론의 이목을 끌고있다.

우선 서울시장후보의 《단일화》문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주도권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졌다고 한다.

보수세력이 후보단일화를 론의한지도 오랬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는가로 매일과 같이 아귀다툼이였다.

너는 서울시장에서 사퇴하였고 또 부동산투기의혹도 있으니 안된다, 너는 이전에도 후퇴만 하였고 《연설도 변변히 할줄 모르는 사람》이니 안된다, 이렇게 《나》중심의 단일화를 위해 후보들은 후보끼리, 당들은 당들끼리 피대를 돋구어댔다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걸핏하면 사퇴 람발하는 사퇴왕(〈국민의힘〉후보)과 툭하면 철수냐? 안철수냐? 하는 철수왕(〈국민의 당〉후보)의 대결》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고 한다.

피터지는 싸움끝에 종당에는 정치기반이 취약한 《국민의 당》후보가 밀려나고말았다.

분석가들은 《세상에서 제일 말리기 힘든 싸움이 감정싸움이다.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서로가 할퀴였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당》의 불신이 깊은것만큼 《단일화》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하고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장후보를 결정한 이후 여야간의 대결은 더욱 치렬해지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련합뉴스》, 《KBS》, 《MBC》 등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후보의 부동산문제, 주식보유의혹을 기본으로 공격을 들이대고있다고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후보의 서울시장재직당시 부동산투기의혹과 아이들에 대한 선별적무상급식을 내놓았다가 시장직에서 밀려난 사실을 걸고 《실패한 시장》,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였던 리명박을 빼닮은 《리명박분신》이라고 몰아대고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장후보의 《부산시아빠트특혜분양의혹》사건, 리명박집권시기 정보원불법사찰개입의혹사건을 꺼내들고 《국민의힘》을 곤경에 몰아넣고있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한편 여야당후보들사이의 공약대결전도 치렬하기 그지없다고 한다.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정책공약들을 내놓고 힘있는 여당만이 민생복지공약들을 현실화할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내세우고있는 선거공약들은 전부 실현가능성이 없는 《선심성공약》, 《거짓말공약》으로 몰아대고있다고 전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임기 1년기간 실행할수 없는 민생경제공약들을 내놓고도 민생을 위한것이라고 크게 떠들어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에 대해서는 《현금살포공약》, 《퍼주기공약》, 《공약의 탈을 쓴 매표행위》라고 헐뜯고있다고 한다.

악성비루스사태가 경제난, 민생고로 이어져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몰락하는 속에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여 싸움을 벌리는 정국을 보면서 민심은 《혐오감만 자아내는 판에 박힌 말장난으로 민심을 기만하는 이런 정례기(정치인과 쓰레기의 합성말)들의 정치판은 불보듯 뻔하다.》고 등을 돌려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안 권 일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극악무도한 《황국신민화》책동

20세기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와 이미 수립하여놓은 식민지통치체제를 더욱 파쑈화하는것과 함께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실시한 《황국신민화》책동은 조선민족을 사상문화적으로 철저히 예속시켜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충성》다하는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식민지파쑈화정책의 한 고리였다.

당시 조선총독이였던 미나미는 각 도지사들에게 한 이른바 《훈시》에서 《황국신민화의 기본은 경신숭조의 신념을 함양하며 풍속습관의 개선향상과 국어(일본어)의 보급이다.》라고 뇌까렸다. 미나미가 떠든 《경신숭조의 신념을 함양》한다는것은 조선민족에게 왜왕과 그 조상들을 숭배하며 《황국》(일본)을 위하여 《충성》다하는 《일본정신》을 불어넣는다는것이다. 또한 미나미가 《풍속습관의 개선향상과 국어의 보급》이라고 지껄인것은 조선의 풍속습관을 개악하여 일본적인것으로 만든다는것이며 조선말대신에 일본말을 쓰게 한다는것이다.

이처럼 1930년대이후 조선에서 실시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은 사상문화분야에서 《일본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악독한 식민지파쑈정책이였다.

일제의 이러한 《황국신민화》정책은 조선강점 첫날부터 실시한 민족동화정책의 최절정이였다.

조선강점직후 일제는 《조선과 일본은 지리상으로 서로 가깝고 인종이 서로 같기때문에 융합동화에 유리하다.》고 떠벌이면서 《내선융화》를 표방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조선과 일본 두 민족의 《동화》가 이루어져야 조선에서의 《문명》과 《번영》이 달성될수 있는듯이 뇌까리면서 이른바 《문명적동화》의 간판을 들고 그것을 교활한 방법으로 실현해보려고 날뛰였다.

1930년대이후에는 《내선융화》, 《문명적동화》따위의 위선적인 가면마저 집어던지고 《황국신민화》의 간판을 로골적으로 들고나왔던것이다. 따라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은 로골화된 민족동화책동이며 그의 최종단계를 이룬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극악한 《황국신민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제는 황당한 《동조동근》, 《내선일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동조동근》이라는것은 조선사람과 일본사람의 조상이 같고 근본이 같다는것이며 《내선일체》라는것은 조선과 일본이 하나이라는것이다.

일제가 이러한 강도적이며 허황한 《동조동근》론과 《내선일체》론을 광범히 퍼뜨린것은 저들이 정책적으로 들고나온 《황국신민화》가 마치도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간의 《재통합》관계인듯이 날조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제는 《황국신민화》를 실현해보려고 기만적인 선전놀음을 벌리는것과 함께 가장 악랄한 파쑈적인 책동을 벌리였다.

1931년 10월 왜왕은 문부대신에게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힘쓰라.》고 지시하였다.

왜왕의 이른바 이 지시는 사상분야에서 파쑈화를 다그쳐 《천황》중심주의에 기초한 《충실》한 《황국신민양성》을 강화하라는것이였다.

왜왕의 이 지시를 받아문 조선총독은 《당면한 급선무는 황국신민교양을 적극 추진시켜 … 국력을 튼튼히 하는데 있다.》라고 떠벌이면서 조선민족에게 일본군국주의 사상을 강요할것을 졸개들에게 내리먹였다.

뿐만아니라 1923년 11월 10일 《대정천황》이 《국민정신작흥에 관한 조서》를 발표한 날을 계기로 《국민정신작흥운동》을 벌릴 흉계를 꾸미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1932년 11월 10일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정신작흥운동》이라는것은 조선민족에게 왜왕을 무조건 숭배하고 귀신과 같이 받들게 하는 《천황》숭배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책동을 말한다.

일제의 《황국신민화》책동은 1937년 중일전쟁의 도발을 계기로 더욱 악랄하여졌다.

일제는 이 시기 조선에서 《지원병제도》를 꾸며냈으며 《조선교육령》개악, 《내선일체에 관한 준칙》작성, 《궁성요배》,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와 《애국일》의 제정 등 《황국신민화》를 위한 각종 파쑈화책동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한명의 조선사람을 훌륭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것은 여러명의 미영군대의 병사를 죽이는 공적보다 못지 않다.》고 지껄이면서 《황국신민화》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여기에는 《황국신민화》를 통하여 조선을 침략전쟁의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어놓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깡그리 략탈하여 침략전쟁수행에 사용하려는 음흉한 기도가 슴배여있었다.

일제의 극악한 《황국신민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사람은 민족적인 모든것을 파괴유린당하였으며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도 없는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이처럼 일제의 《황국신민화》책동은 조선민족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기 위한 가장 악랄한 식민지파쑈화정책의 하나였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차음료공장

예로부터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선의 음료》, 《만병통치의 장생불로약》으로 간주되여왔다.

우리 민족의 차마시는 풍습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반영된 차마시는 장면을 놓고서도 우리 민족의 차문화의 력사가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차문화는 오늘도 면면히 이어져 각지 급양봉사기지들과 가정들마다에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은정차의 향기가 풍기고있다.

지난 2월 평양시 락랑구역 남사리지구에 은정차음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현대적인 은정차음료생산공정을 돌아보았다.

다매질려과, 이온교환정제, 정밀려과 등을 갖춘 물정제공정과 차우림 및 차려과공정 등 생산공정전반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높은 수준에서 완성된 모습은 볼수록 멋이 있었다.

공장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생산 및 포장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통합생산체계와 태양빛발전체계, 석탄가스화에 의한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은정차음료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었다.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최현식지배인은 세계 3대기호음료의 하나로 되고있는 차를 우리 식의 음료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이 새롭게 연구개발되여 맛과 향기, 색갈이 독특한 차음료들을 생산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차문화를 개화발전시켜주시고 온 나라에 은정차향기가 그윽히 차넘치도록 하여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다른 나라에서 재배되고있는 차나무모도 몸소 보내주시고 차재배의 적지도 찾아주시였으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차나무재배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은정차.

차나무재배면적을 년차별로 늘이고 비배관리를 개선하며 은정차봉사를 잘하는 한편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마실수 있는 차음료를 생산하는 공장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최현식지배인은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은정차음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차문화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고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자동화, 흐름선화된 공정들에서 맛과 향기가 독특하고 건강에도 좋은 록차, 홍차, 철관음차음료들이 줄줄이 생산되여나오는 모습은 볼수록 흐뭇했다.

은정차음료의 질을 더욱 개선하고 다양한 차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따뜻한 향기, 아름다운 정서를 더해줄 열의에 넘쳐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김 철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레스링강자 김철환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중에는 세계레스링계에 널리 알려진 로력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인 김철환도 있다.

평양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한 그는 1981년 7월 청소년친선국제레스링경기대회와 마쟈르에서 진행된 국제레스링경기대회에서 각각 우승함으로써 국제레스링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3년 9월 이전 쏘련의 끼예브에서는 제22차 세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경기대회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물리친 그는 세계최강자라고 자처하던 선수와 결승경기를 하게 되였다.

결승경기에서 김철환선수는 상대방을 9:5라는 큰 점수차이로 이기고 세계선수권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화국의 첫 세계레스링선수권보유자는 이렇게 태여났다.

그는 1985년 10월 마쟈르에서 진행된 제23차 세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 48kg급경기에 참가하여 완강한 인내력, 기민한 정황판단과 림기응변의 전술로 모든 선수들을 압도적인 우세로 누르고 또다시 세계선수권을 보유하였다.

그의 경기를 보면서 레스링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은 환상적인 기술과 강한 의지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자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김철환은 1981년부터 5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큰 규모의 국제경기대회에 15번 참가하여 1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본사기자

영원히 울려갈

《밭갈이노래》

《밭갈이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신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난생처음 제 땅에서 밭갈이를 하게 된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을 노래한 민요풍의 서정가요이다.

가사에서는 해방된 조국강산에서 땅의 주인된 기쁨을 안고 모두다 밭갈이와 씨뿌리기에 떨쳐나선 농민들의 벅찬 로동생활을 자연의 아름다운 화폭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천만년 보답하려는 그들의 소박하면서도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고있다.

5계단음에서 흥취나는 장단을 타고 시작되는 선률은 생활의 기쁨과 로동의 희열을 안고 약동적으로 흐르면서 경쾌하게 오르내리거나 벅차오르는 감격을 터치듯 폭넓고 시원하게 날아오르기도 하면서 발전하다가 낮은 음에서 보다 흥겹고 활기있는 정서로 끝을 맺고있다.

민요적바탕의 아름다운 음조로 일관된 노래의 선률은 밝은 색조와 류창한 음진행, 률동적인 모방진행 그리고 뻐꾹새소리의 삽입과 《아》의 대조적인 음조, 춤추는듯 한 《에루화데루화》의 흥취나는 선률투의 도입으로 민족적정서와 락천적기백을 더 짙게 하여준다.

가요는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 사랑을 받는 명곡의 하나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태양열온실덕을 크게 본다

공화국의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는 생산직장건물우에 2동의 태양열온실을 꾸려놓고 남새를 심어가꾸고있다.

해가 잘 드는 위치에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와 더운물을 작물재배와 온실경영관리에 효과적으로 쓰고있다.

영양액에 의한 무토양재배방법과 수경재배기술을 도입한 온실에서는 환경관리와 생육조사, 영양액주입, 온습도조절 등 모든 관리를 통합조종체계로 한다.

온실에는 공간을 립체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바닥과 벽체에 덕대들을 여러층으로 설치해놓아 작물재배면적과 밀도를 높이였다.

또한 온실안에 수십㎥의 수조를 만들어놓고 메기와 열대붕어, 룡정어를 기르고있다.

양어과정에 리용한 물은 재순환된다.

여기에서 생산된 많은 남새와 물고기는 종업원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있어 누구나 이 온실을 정겨워하고있다.

본사기자

민족음식

달래장절임

달래장절임은 달래와 무우를 섞은것에 양념을 무쳐 만든 음식이다.

달래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조섬유와 여러가지 비타민, 광물질들이 들어있다.

이로 하여 달래는 강장작용, 강정작용, 건위작용, 아픔멎이작용, 항염증작용, 독풀이작용 등을 나타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음식감으로 달래 300g일 때 무우 100g, 소금 1g, 간장 15g, 고추장 20g, 참기름 10g, 사탕가루 5g, 식초 10g, 참깨 2g을 준비한다.

달래는 긴것은 적당히 자르고 무우는 가늘게 썰어 소금을 뿌려두었다가 물을 짠다.

다음 고추장에 간장, 식초, 사탕가루를 두고 양념즙을 만든다.

달래와 무우를 섞어 양념즙으로 무치고 참기름을 친 다음 그릇에 담고 닦은 참깨를 뿌려낸다.

본사기자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로도, 뢰도, 령도

로도, 뢰도, 령도는 긴 나무막대기에 한개 또는 여러개의 작은 북들을 북통의 중심에 꿰뚫어 꽂아놓은 북종류의 하나이다.

북통중심에 가죽끈을 매달았는데 악기의 나무대를 뽑아들고 좌우로 돌리면서 흔들면 가죽끈이 북편에 부딪쳐 소리가 나게 되여있다.

본사기자

사화

고구려화가 담징 (1)

글 리성덕, 그림 김윤일

일본 법륭사의 금당에 그린 벽화는 조선의 경주 석굴암, 중국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3대미술품의 하나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벽화는 동방미술사는 물론 세계미술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으로서 일본회화사의 첫 페지를 장식한 력사적인 예술품이다.

이 걸출한 미술작품은 고구려의 화가 담징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동양3대미술품중에서 경주 석굴암과 법륭사 벽화 두가지가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는것은 참으로 자랑할만 한 일이 아닐수 없다.

모두 12개의 벽면으로 된 금당의 벽화 《사불정토도》는 고구려화가 담징이 그린 창작품인데 그중 특히 우수한것은 제6호벽의 《아미타여래상》과 제2호벽의 《일광보살상》이다.

이 그림들은 그린 때로부터 천수백여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대로 보존되여있어 세계적인 보물로, 최고의 미술품의 하나로 여겨왔었다. 그러다가 1949년 법륭사가 불탈 때 이 벽화도 소실되였다.

1968년에 일본의 수많은 일류급화가들이 원상대로 복구한 법륭사 금당벽에 벽화를 다시 그리기는 했지만 원화보다 못하다는것을 그들자신이 인정하고있다.

그러면 그토록 훌륭하고 걸출한 미술작품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

고구려 영양왕21년(610년) 3월, 고구려의 화가이며 승려인 담징은 배를 타고 왜나라로 건너가고있었다.

순풍이였다.

돛은 바람을 안고 배를 동쪽으로, 동쪽으로 밀어갔다.

하염없이 늠실거리는 물결 저쪽으로 멀어지는 고국산천, 겨레의 땅을 바라보는 담징의 얼굴에는 알수 없는 그늘이 짙게 어려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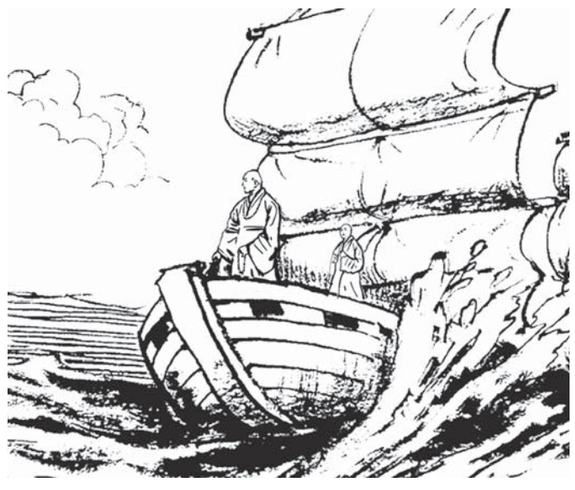
담징과 함께 가는 승려인 법정은 바다바람에 펄럭이는 가사자락을 여미며 까딱도 않고 갑판우에 서있는 담징의 모습을 바라보고있었다.

30대의 장정, 준수한 얼굴과 사나이다운 골격, 비록 머리를 깎고 몸에는 가사를 걸치였으나 고구려사람의 그 장하고 도도한 기상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나오고있었다.

팔목에 감은 념주와 손에 든 목탁을 버리고 장검을 비껴들고 철갑의 준마에 높이 앉아 드넓은 광야를 줄달음친다면 틀림없이 세상을 놀래울 장수로 되였을 담징이였다.

그러한 헌헌장부였기에 고국을 떠나 한쪼각의 돛배에 몸을 의지하여 왜나라로 가는 그의 마음은 밝지 못하였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던 외적이 수백만군사를 모아 땅과 바다로 고구려를 다시 들이치리라는 흉흉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있는 때에 사랑하는 고구려의 아름다운 강토와 귀중한 그 겨레들을 위하여 성돌 하나 메나르지 못하고 떠나는 그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웠다.



그는 평생에 열망하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자기의 처지가 원통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수 없었다.

왜나라의 거듭되는 초청은 수락되였고 몸은 이미 배에 오른것이였다.

마음속엔 회오리바람이 일었으나 바다바람은 순풍이였다.

3월의 봄볕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물결을 늠실늠실 가르며 배는 살같이 왜나라를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왜나라에 배가 닿자 법륭사 주지를 비롯한 관리들이 나와서 담징을 나라지방으로 인도하였다.

낯설은 산천이요 눈설은 사람들이였다.

안개속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산발, 키높이 자란 소나무, 그 울창한 숲속에 왜땅 최대의 사원건축물인 법륭사가 자리잡고있었다.

법륭사!

이 호화롭고 화려한 대불당이 담징으로 하여금 수천리길을 헤치고 이곳으로 오게 한것이다.

법륭사가 이곳에 일떠선것은 왜나라 추고(스이고)녀왕 15년(607년)이였다.

당시는 왜나라의 왕인 추고녀왕의 사위 성덕태자가 섭정하던 시기였다.

성덕태자는 조선(고구려, 신라,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서 여러 부문의 기술자들이 왜나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보급하게 되였다.

바로 법륭사도 607년에 백제에서 건너간 사원건축미술가들의 집단에 의하여 8년동안에 건설된 왜나라 최대의 사원이였다.

그런만큼 법륭사의 건축양식은 백제의 7당가람의 건축형식을 그대로 닮고있었다.

법륭사는 중심불전인 금당을 비롯한 5중탑, 중문, 회랑 등으로 구성되여있고 강당, 서실, 동실, 북실, 고루, 종루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건물들로 화려하고 웅장한 가람(절에 달린 집)을 이루고있었다.

그중에서도 금당은 가장 화려하고 예술성의 극치를 이루는 중심건물의 하나였다.

그런만큼 이 금당안팎의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일만은 아무에게나 맡길수 없는 일이였다.

왜나라의 승려들과 백제건축가들은 한결같이 불교문화의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고 또 백제와 신라는 물론 왜나라에까지 불교를 전파시킨 고구려의 유능한 예술가만이 이 일을 감당해낼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법륭사가 완공되자 왜나라에서는 유능한 화가를 보내줄것을 고구려에 청탁하여왔던것이다.

◇ 상식 ◇

봄철섭생의 묘리

봄철은 절기로 보면 립춘으로부터 시작하여 립하전까지이다.

봄에는 기후변화가 심하고 특히 이른봄에는 갑자기 더웠다추웠다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게다가 피부가 성기여지기 시작하여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병에 걸리기 쉽다.

우리 선조들은 독특하게 봄철섭생을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지켜나갔다.

봄철에는 양기를 보충할수 있는 파, 마늘, 부추, 냉이 등을 많이 먹었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파, 무우, 당귀를 먹었으며 생선을 가늘게 썰어 익힐 때 고비나물, 국화잎, 파, 익힌 전복, 닭알 등을 섞어 만든 어채도 먹었다.

또한 물고기와 데친 미나리에 파를 넣고 양념하여 먹기도 하였고 쑥떡, 수리취떡, 설기떡, 쉬움떡, 제호탕, 앵두화채 등을 잘 만들어 먹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담이 커야 범을 잡는다.

무슨 일이나 큰뜻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담이 커야 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소뿔은 단김에 빼라.

어떤 일이든지 생각났거나 열이 올랐을 때 기세를 늦추지 말고 내처 해치워야지 미루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글가.

자그마한 장애가 있다 해서 해야 하거나 하고싶은 일을 아니하겠는가 하는 뜻으로 할 일은 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